

선비의 고장 장성군, '청림 라이브 교육' 주목

지지당 송흙, 아곡 박수량, 하서 김인후 등을 배출한 '선비의 고장' 장성군이 청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림 라이브(live) 교육'을 마련했다. 장성군청, 경찰서 소속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림 인식을 높이고 공직자 사명감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

행됐다. 먼저 청림의 가치를 판소리로 표현한 '신 별주부전'이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공연은 조애란 판소리사랑방 '소란' 대표가 맡았다.

이어진 특강에선 강상우 청림 전문강사가 강단에 올랐다. 갑질 금지 및 청림 행동강령 내용을 실제사례 소개와 함께 풀어냈다.

강연 이후에는 청림 콘텐츠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작 내용을 모래로 표현한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공연이 펼쳐졌다.

교육 마지막에는 '청림 감동영상'이 상영됐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다뤄 공감을 얻었다.

장성군 청림 라이브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 이모 씨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강연으로 구성된 콘서트 형식이 참신하게 다가왔다"며 "공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아침을 여는 '청림방송' 운

영 △청림 콘텐츠 경진대회 △청림 실천 다짐 '청림결의대회' 실시 △청림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청림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만에 2등급을 회복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렴한 사회가 조성되면 군민이 행복하고 아이들은 애항심을 품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인 '나주애배움바우처' 사용 기관을 본격 모집한다.

시는 최근 바우처 등록을 희망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 12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애배움바우처는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폭넓고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 15만원의 학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만19세 이상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 중 평생학습 분야 바우처 사업은 나주시가 최적이다.

폭넓고 다양한 학습, 활동 참여는 물론 문화·예술, 여가·스포츠, 공예·체력 등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사례, 홍보 영상, 사용기관 등록 설명, 퍼실리테이터를 통

한 당일 현장 등록지원 및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보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 기관 모집에 본격 나선다. 사용 기관 등록은 연중 수시로 하지만 오는 7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나주애 배움바우처 설명회를 기점으로 시민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관에서 배움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등록 조건은 관내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결제가 가능한 기관이다. 단 골프·당구·볼링 등 오락성 분야, 운전면허·보습학원·과외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은 제외된다.

사용기관 등록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업체·업종이 교육서비스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교육기관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김동철 기자

영광군 상반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확정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외식환경 개선사업인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벗고 나섰다.

본 사업은 장기간의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 영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외식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군민 맞춤형 시책이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48개소 음식점에 테이블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부족한 재원으로 영업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올해 총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한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입식테이블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민과 이용객의 외식문화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나 음식점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광군의 외식문화의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스포츠산업과 위생팀(061-350-5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와 지역 상생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과 대학 간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됐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조선대학교, 지역상생 위한 협약 체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와 지역 상생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과 대학 간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혁신 협력 협의회를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군-대학 간 신규 협력 사업 발

굴·추진 ▲국비 사업 및 도 사업 공모 공동 대응 ▲기업지원 서비스 ▲학생 취·창업, 현장실습 공동 지원 ▲대학-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 ▲의료, 환경, 문화예술관광, 도시재생, 사회복지 분야 협력 등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호남 제일의 명문 사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조선대

학교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지역과 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화순군과 가장 가까운 대학이다"라며 "협약을 바탕으로 화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우리 대학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서 수상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3년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지정제신문 주관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담양군은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전기차 보급,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투자, 종이팩 화장지로 교환운동 등 탄소배출량 감소에 적극 나선 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해 총 32억 1천700만 원을 지원해 전기차 승용차 140대, 화물차 67대, 이륜차 31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급속 충전소는 30기씩 해마다 지속 확대했다.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도 추진했다. 지난해 말까지 담양군 전체

세대 중 27%인 6,749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보상을 주는 제도다. 담양군 내 4천860세대가 지난해 총 3억4천600만 원을 탄소포인트 제도로 보상받았다.

아울러 군은 '담양호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49억 원을 투입해 생태 단지로 육성했다. 담양하천습지에는 총 10억 원을 투입해 조류관찰대 설치, 배수로 물길 복원, 습지훼손 지형복원 등을 했다. 1가구당 해마다 3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전개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총 35억 원을 투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담양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성진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자연경관인 화정리곡성상 수상작